

“나주 역사문화 관광 출발점...열린 문화 공간 도약”

김현희 국립나주박물관신임관장 취임

“국립나주박물관이 나주 역사문화 여행의 출발점이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공식 취임한 김현희(사진) 국립나주박물관 신임 관장은 나주만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관장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초임 학예사부터 학예연구과장까지 약 10년간 근무하며 역사유적과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만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자연이 어우러진 나주가 경주와 닮았다고 한다.

특히 경주에 ‘금관’이 있다면 나주에는 ‘금동관’과 ‘용관(독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관(冠)’과 ‘관(棺)’의 만남을 나주의 역사와

경주박물관 10년 근무 등 풍부한 경험 바탕 전시·디자인 새 흐름·관람객 눈높이 반영 콘텐츠 개발·지역민 소통·자원 활용 확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내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그간 쌓은 지역박물관 전시 경험도 나주에서 이어간다. 김 관장은 2014년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에 참여했으며, 국립광주박물관 브랜드 도자실과 상설전시, 국립경주박물관 월지관 재개관 작업 등을 맡았다.

그는 전시의 공간과 디자인 역시 당시의 새로운 흐름과 관람객의 눈높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같은 문화유산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어떤 유산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학예



사와 연구자, 지역민과 함께 나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낼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연 속에 자리한 ‘전원박물관’이라는 국립나주박물관의 정체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남고분군과 주변 자연경관에 어우러진 공간적 장점을 살려 전시 관람뿐 아니라 산책과 휴식, 계절의 변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설 새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국립나주박물관이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전시를 관람한 뒤에는 자연 속을 걷고, 가

족과 함께 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물관을 하나의 목적지가 아닌 나주의 역사문화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허브와 정보센터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또 마한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시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가·시민과의 소통, 관광자원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 마산 출신인 김 관장은 창원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을 거쳤으며 국립김해·대구·제주·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과 2014년 국립김해박물관 리노베이션 전시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복기자

목포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한마음대회 성료

재난 대응력 점검 장학금 200만원 기탁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1일 “최근 목포 국제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목포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과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대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심폐소생술 시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선수 선서, 소방기술 경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대원들은 평소 갖고있던 각종 소방기술을 겨루며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원들이 심시일 반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을 목포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창우 연합회장과 한미소 여성연합회장은 “오늘 대회는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자리”라며 “승패를 떠나 서



로의 기량을 나누고 연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자긍심을 갖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6개 소방대, 200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지원을 비롯해 재난·안전 훈련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북부경찰, 관계성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재점검

광주 북부경찰서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피해자들의 재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현황을 재점검했다.

북부경찰서는 1일 오전 ‘제10차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최초 심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재평가 대상자 13명의 보호 상황을 살폈다.

회의에는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수사·형사와 사건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피해자별 위험도와 재피해 우려 여부를 비롯해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 이행 상황, 보호·접촉 등 위험징후, 주거지·직장 등 생활환경

의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 내부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과 위험 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도를 상향해 보호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비공개 컴퓨터나 보호시설 입소, CCTV 설치 여부 등도 재점검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안전조치는 최초 심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변동하는 상황과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세밀하게 보완·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과학관, 제주에 AI 체험·교육 공간 본격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주권 AI 서비스러닝컨설팅데이’를 열고, 제주지역 두곳에 조성한 인공지능(AI) 체험·교육 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권 AI 서비스러닝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모두의 AI 라운지’ 거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모두의 AI 상상사다리 프로젝트’ 전라-제주권 거점 운영기관에 선정된 국립광주과학관은

제주도민의 AI 교육·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서귀포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AI 서비스러닝지를 각각 구축했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은 “제주권 AI 서비스러닝지는 제주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AI를 배우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앞으로 광주와 제주를 연결해 전라-제주권의 AI 교육과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구례 문척면지사협,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1일 “최근 문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지난 6월 열린 수박축제 당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거둔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땀 흘려 얻은 수익을 지역 사회에 의미 있게 환원하자는 데 뜻을 모아 기탁을 추진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

정기탁을 거쳐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협의체 위원들은 “수박축제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시 나눌 수 있어 뜻 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문척면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축제 현장에서 피어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ACC재단 ‘선한올림 푸드박스’ 나눔 행사 열어

사조푸드스트·(사)굿에코랩...150인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1일 “전날 사조푸드스트, (사)굿에코랩과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선한올림 푸드박스’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문화기관과 식품기업이 손잡고 ‘식객·맛의 뒤편’ 전시 핵심 메시지인 ‘음식을 통한 연대와 온기’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3개 기관은 광주 지역 자영업자의 정성이 담긴 ‘푸드박스’ 150인분을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나눔에서 재단과 사조푸드스트는 푸드박스 제작과 물품을 후원했다. (사)굿에코랩은 프로젝트 기획과 참여 자영업자들의 홍보 영상 제작을 도왔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대상자 선정과 현장 배분을 맡아 민관 협력형 사회 공헌 모델을 완성했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사조푸드스트, (사)굿에코랩과 함께 전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온기로 전달 수 있어 뜻 깊다”라며 “문화와 기업, 지역 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고 있는 ‘식객·맛의 뒤편’ 전시는 음식 뒤편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호평 속에 운영되고 있다.

/오복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호철 교수 ICBMT 2026 ‘우수연제상’ 수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장호철(사진) 교수가 지난날 중순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6년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6)에서 재발·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전체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연제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장호철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Oral Presentation 5’ 세션에서 ‘종적 전장엑소시퀀싱을 통해 이브루티닙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서 초기 클론 억제와 지연된 치료 저항성의 발생을 확인(‘Longitudinal Whole-Exome Sequencing Revealed Early Clonal Suppression and Delayed Resistance Evolution in Relapsed/Refractory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Treated with Ibrutinib’)을 주제로 구연 발표했다.

장호철 교수는 “치료 초기의 임상 반응이나 특정 시점의 유전체 조건만으로는 이후의 질환 경과와 분자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이어가 치료 저항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유전체 모니터링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김시라 전남광주농기센터 소장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취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1일 “김시라(사진) 소장이 제18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등에 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시험은 1·2·3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건설안전분야 시험 최종 합격률은 1차 대비 3%대로 올해는 1차 시험에 5천556명이 접수했고 최종 합격자는 185명이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 예방, 농업인 안전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상담, 농기계 안전점검 등 지원 활동을 확대해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시라 소장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농업인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온정 릴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일 “최근 담양 출신 이해란 선수(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가 다문화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50만원을 담양군가족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도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에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센터에 쾌척했다. 2019년부터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박은희 향촌복지과장은 “다문화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눠줘 감사드리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의미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결혼

▲김덕모(호남대학교 교수)·김용주씨 차남 경보군, 서동욱·장정희씨 장녀 민교양·10일(토) 오후 12시30분 서울 덕진엔터 빈포 2층 그랜드볼룸홀(02-6243-6000)